



머리글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곳에 오고 있는가’

지난 7월 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견진성사가 봉헌되었습니다. 구요비 주교님께서 직접 오셔서 미사를 집전해 주셨고, 열두 명의 형제들이 견진을 받았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 주교님께서 예수님의 열두 사도처럼 딱 열두 명의 형제들을 이렇게 오묘하게 세워주신 하느님의 섭리에 감탄하셨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저희 모두에게도 정말 큰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주교님께서 강론 중에 견진을 통해 성령의 궁전이 된 형제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봉사자들도 성령의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도구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정사목을 하는 저희 봉사자들의 마음에 유독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곳에 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도구로 산다는 것은 내가 채우고 싶은 만족을 채우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정 현장에 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만나는 형제들이 받아 가야 할 위로와 은총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받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봉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얻어가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무엇을 얻어가는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방식보다는,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료 봉사자들과 사제, 수도자들이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다듬어온 방향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열심과 선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성찰이 녹아있는 그 공동체의 약속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겸손하게 감당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봉사가 참된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뜻을 앞세우기보다 이 자리에서 요청되는 것에 자기를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곧 희생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일 것입니다.

열두 사도를 세우신 하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또다시 열두 명의 형제들을 세우시고, 저희를 그 곁에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이번 견진성사를 계기로 우리 봉사자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 대신, 만나는 형제들이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를 먼저 고민하는 봉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해밀 가족 아유회



6월 15일(월) 前 위원장 김성은 신부의 소임지인 춘천교구 송정공소에 前 부위원장 이호섭 요셉 신부도 함께 방문하여 해밀 가족들과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추억을 되새기며 새로운 추억도 쌓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인연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앞으로도 해밀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걸어가기로 기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7월 6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최남식 베드로 신부(살레시오회)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최남식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청소년센터에서 생활하던 아이가 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호흡기를 떼야 한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에 하느님께 매일 같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기적이 일어났으며, 아이가 자가호흡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라며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와 간절함을 담은 기도가 하느님께 닿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 미사에서 이승민 대건안드레아(7월 5일) 신부의 축일 축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일 특송을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수용자와 출소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울남부교도소 견진성사



7월 7일(화) 서울남부교도소에 구요비 주교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요비 주교님은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소년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따스하게 손을 맞잡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남부교도소 공장에서 12명의 견진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주교님은 강론을 통하여 견진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울곧게 살아가는 은총과 용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축하를 전하였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다가설 수 있기를 축복해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북 주거복지센터 협약식



7월 13일(월) 교정사목 센터에서 성북주거복지센터와의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취약계층 출소자의 주거 안정과 긴급주거비 지원 등 사회복귀와 자활 지원에 대한 협약이었습니다. 이로써, 주거 서비스 연계 체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활발해 지기를 바랍니다.



봉사자로 40년이란 세월의 의미

신희자 소피아 / 서울동부구치소 봉사자

얼마전 뜻하지 않게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장기 교정 봉사자(40년)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구 성동구치소)에서의 교정 봉사 40년이란 세월을 조용히 눈을 감고 처음 방문 때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늘 하던 대로 묻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재미있었어?”

“응 성동구치소에 다녀왔어요”

“구치소? 당신이 왜?”

구치소에 다녀왔더니 깜짝 놀라는 남편에게 자초지종 얘기했더니 놀랐다면서 웃었습니다.

“당신은 성당 봉사만 하면 좋겠어.”

“교정시설에서 봉사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그러나 성당은 나 아니어도 봉사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시작한 봉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교정시설 안에 들어서면 세상의 많은 시끌시끌하고 복잡한 사건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분들과 마주하는 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처음엔 무조건적 연민이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의까만 눈동자와 깊은 호흡이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들 속의 예수님과 만나고 숨쉬는 시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위해 교리를 준비하는 시간도 저를 새순처럼 자라게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주님의 은총이라 하겠지요. 그렇게 수용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들이 비록 간헐적이지만, 사회 복귀의 꿈이 있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결심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새로 태어나기 위한 준비

로 예비자가 되어 교리를 받는 그 얼굴들에서 제가 오히려 희망을 품는 행복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혹 재범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각박한 사회의 적응에 힘들음을 봅니다 (멀리서 그도 울고 저도 옵니다.)

그런 저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밀려오는 유혹의 결과물들은 모두가 부모의 몫이 된다는 것, 하느님은 저희 부부에게, ‘나에게 오기 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4~5년의 긴 침묵 속에 이제야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회복기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힘들어할 때 묵묵히 침묵으로 토닥여 주시며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어 주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하신 예수님. 제가 항상 힘들고 아파할 때 제 곁에 저의 남편이 들려주는 음성. 그 음성은 저를 위로하고 환하게 웃게도 해주시는 예수님.

또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아들이지만,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예수님, 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은 저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며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지킴 목이 되어주는 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3분 모시고 살아갑니다.

저는 행복한 여인! 주님께 봉사하는 작은 드림이 언젠가 큰 선물로 제 곁에 우뚝 서서 지켜주십시오. 아멘!

“부모와 더불어 되어가는 아이들”



박경진 루치나 / 더품다교육공동체



딸~ 딸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랑?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랑 다 나눠줄거야!
엄마, 아빠한테도 주고. 길에 사는 고양이한테도 주고. 다 줄거야!

10년 전, 아이와 작은 통나무집에 누워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일곱 살 아이는 사랑의 개념과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고 경험한 사랑이 좋았고, 그 사랑은 나누어야 커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이의 말은 제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도록 이끌었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사랑 많은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 조금씩 되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되어간다’는 말의 의미

되어간다는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배우며, 조금씩 자신이 되어갑니다.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인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곧바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며, 기뻐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다시 마음을 내는 과정에서 부모가 되어갑니다. 아이 역시 처음 인생을 살아가며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를 통해 자신의 조급함과 욕심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눈빛과 말, 기다려주는 태도를 통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배웁니다. 부모와 아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자랍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부모와 아이

부모님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자주 만납니다.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다 주고 싶어 하고,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간절할수록 아이를 통제하거나, 자신의 기대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엄마는 제 성적에만 관심 있어요. 숙제는 했는지,
학교 수행평가 점수는 몇 점인지. 그것만 물어봐요”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걱정과 관심이었지만, 아이에게는 감시와 평가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때로 부모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표현됩니다. 성적이 좋아야 안심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 마음이 놓이며,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아이의 미래가 안전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는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보다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아이 역시 부모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모가 걱정해서 묻는 말도 자신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과 아이가 경험한 사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해주는 일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위한 부모와 자녀

부모는 아이를 완벽하게 키워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와 자녀는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부모도, 완전한 아이도 아닙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그 과정에서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부모는 아이를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완성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더불어 조금씩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2026년 제27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안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마태 25,36)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을 통해 수용자와 출소자들과 같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교정사목 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정 : 2026년 9월 3일(목)~11월 12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 장 소 :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센터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 교육비 : 10만원 / 우리은행 1005-903-307477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 신 청 : 2026년 8월 28일(금)까지 ☎ 02-921-5093 / 010-3732-5093)
- 교육일정



회기	날짜	강의 내용	강사	소속
1	9/3 (목)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소개 교정시설의 이해	Fr.정민하 조영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성심회 총회장 (서구 특사경팀장)
2	9/10 (목)	수용자, 수용자 가족, 범죄 피해자와의 상담심리를 통해 본 그들의 이해	Sr.최인형	노틀담수녀회
3	9/17 (목)	가톨릭 교육에서 바라보는 수용자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엄기홍	더품다 교육공동체
4	10/1 (목)	고봉중고등학교 / 소년분류심사원	Fr.최남식	살레시오회
5	10/8 (목)	사형폐지와 인권	Fr.하성용	정의평화의위원회 위원장
6	10/15 (목)	누명과 재심	장동익 박준영	출소자 형제 인권변호사
7	10/22 (목)	범죄와 자립, 상담기법	김성일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장
8	10/29 (목)	교정시설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	Fr.유정수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 협의회 회장
9	11/5 (목)	시설 참관 (서울구치소)		
10	11/12 (목)	현장 활동 사례 파견 미사	대표 봉사자 Fr.정민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상기 프로그램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신부님, 봉사자님, 그리고 교도관님께

저는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곳에 있었던 13개월 동안 집회에 참여하여 미사를 드리고, 여러분께 받았던 배려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5월에 한 차례 편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5월에 가석방으로 출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애석하게도 징역의 문턱은 참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 형기의 만기는 9월이고 7월의 가석방 심사가 마지막일 듯하여, 이번에는 정말로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감사 인사가 될 듯하여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신부님, 봉사자님, 그리고 교도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선 제게 빛이자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곳 서울구치소에 처음 왔을 때의 저는 절망을 마주하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배신했고, 제게 사기를 친 11년을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낸 지기에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의 저의 '억울함'과 '원망'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의'를 외면한 법을 원망했고, 사실을 밝히는 것이 어째서 협박이라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이런 제 자신이 왜 범죄자가 되어 수용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두운 절망의 절벽 끝에서 저는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께서는 제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천상의 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불러주신 성가는 지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법 앞에 무너질뻔한 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용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빵을 나눠주시는 봉사자님들을 통해 따뜻한 정을 느꼈고 뜨겁게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미사를 드리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일독하였습니다. 신자가 아닌 저의 시점에서 성경의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매주 수용자들을 위해 노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빵을 나눠주시는 천주교 봉사자님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곧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닮아, 그리고 여러분을 닮아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이제와 영원히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정OO 드림

※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는 형제님이 정민하 신부님께 보내온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9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2026년 제27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 일시: 2026년 9월 3일(목)~11월 12일(목) ■ 장소: 교정사목 센터 ■ 교육비: 1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소식지 6면을 참고해 주세요.

● 행사 알림

- 8월 3일(월) 10시 30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8월 5일(수)~7일(금)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
- 8월 14일(금) 10시故 유경춘 주교님 1주기 추모 미사 / 주교좌 명동대성당
- 8월 14일(금)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소년학교) 일일교장학교
- 8월 19일(수)~21일(금)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사제·수도자 연수 / 파주 민족화해센터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6/06/16~26/07/15)

2026년 6월~7월에는 김소미 요세피나, 불광동성당 강홍주 대건안드레아 외 81명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불광동성당 KIM CHO HEE YOUN Lydia 외 50명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